

나는 담배를 피웁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와 지하철, 버스와 여러 건물등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필수 없는 것이 규칙이다. 나도 그런 규칙이 정당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에 나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피우면 정신이 안정되고 시간을 때우는 데도 좋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담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